

2014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A형] •

국어 A형 정답

1	㉔	2	㉕	3	㉖	4	㉗	5	㉘
6	㉙	7	㉚	8	㉛	9	㉜	10	㉝
11	㉞	12	㉟	13	㊱	14	㊲	15	㊳
16	㊴	17	㊵	18	㊶	19	㊷	20	㊸
21	㊹	22	㊺	23	㊻	24	㊼	25	㊽
26	㊾	27	㊿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해설

[1~5] 화법

1. [출제의도] 화법의 성격과 요소 파악하기

㉔은 소장이 병민의 말에 공감한다는 의미의 대답이지 질문의 의도를 재확인하는 말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밀어주겠다고 하셨다면서’라는 표현에서 소장이 병민의 진로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② ‘걱정스런 표정’이라는 비언어적 표현과 ‘그랬구나. 참 속상하겠다.’라는 언어적 표현을 병행하여 병민에게 공감을 표현하고 있다. 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격언을 인용하고 있다.

2. [출제의도] 이어질 내용 추론하기

[A]를 고려하면 ‘병민’이 아버지에게 할 말에는 요리에 소질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야 한다. ⑤와 같이 요리에 재능이 있는지 방과 후 요리교실에 다니겠다고 말한 것은 자신의 소질을 확실하게 알아보는 방법에 해당한다.

3.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대담에서 진행자의 체형이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자신의 체형을 바탕으로 질문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진행자는 마지막 발언에서 소장의 발화 내용을 다시 언급하면서 전달하고 있다. ③ 진행자는 첫 발언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해저터널이 완공되는 날’임을 밝히면서 대담을 시작하고 있다. ④ 소장은 마지막 발언에서 ‘약전의 개념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여 청취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⑤ 소장의 네 번째 발언에서 해저터널 공사의 특징을 육상터널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4. [출제의도] 말하기 계획 확인하기

폐휴대전화에 금, 은, 구리 등의 귀중한 광물이 들어 있다는 내용은 있지만, 이러한 금속 자원을 폐휴대전화에서 추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은 없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서 ‘스마트폰이 ~ 빨라지고 있습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2문단에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2,500만 대가 ~ 재활용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김 박사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폐휴대전화에서 금, 은, 구리 등의 귀중한 광물을 추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④ 4문단의 ‘캠페인이 ~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출제의도] 말하기 내용 평가하기

1문단에는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고, 2문단에는 방송의 보도 내용이 드러나 있다. 또 3문단에는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이 드러나 있다. 이처럼 화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나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는 등 객관적인 정보를 다양하게 제시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오답풀이] ③ 도입부에서는 휴대전화의 교체 주기와 폐휴대전화의 재활용률이 낮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을 뿐 핵심 주제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④ 1문단의 ‘학우 여러분 ~ 자주 바꾸시나요?’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질문은 전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다. 3문단의 ‘잘 보셨죠?’라는 질문은 1문단의 질문과 동일한 내용이 아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질문을 여러 차례 던져 문제 상황을 청중들이 정확히 인식하도록 했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⑤ 발표 내용의 일부를 도식화하여 보여준 부분은 없다.

[6~10] 작문

6.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표현하기

자료는 칭찬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조건을 충족하려면 칭찬의 역기능을 주장하는 내용을 비유적으로 드러내야 한다. ③의 경우 아이를 결과에만 집착하게 만든다는 것은 첫째 조건을 충족한 내용이며, 케이블카를 타고 산 정상에 올라가는 상황에 비유한 것은 둘째 조건을 충족한 내용이다.

[오답풀이] ①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나, 자료의 주장과 상반된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②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칭찬의 역기능과 순기능이 다 드러나 있다. ④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나, 자료의 주장과 상반된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⑤ 자료의 주장과 상반된 입장을 취했으나,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7.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 파악하기

(가)의 ‘본론-2-ㄴ’의 ‘시설적 측면’에서의 해결책(㉔)이 (나)의 3문단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서론’의 자전거 이용 실태(㉔)를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교하여 초안의 1문단에 언급하였다. ②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한 제도적 원인(㉔)을 초안의 2문단에서 언급하였다. ③ 시설적 측면의 문제점(㉔)은 2문단에 언급하였다. ④ (가)에서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측면에 대한 해결책(㉔)을 (나)의 3문단에서 밝히고 있다.

8. [출제의도]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초안을 작성한 후 추가로 보충 자료를 수집한 경우 개요와 초안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㉔의 자료는 자전거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㉔을 활용하여 (가)의 ‘본론-1’에 문제의 원인으로 의식적 측면을 새로 추가하고, ‘본론-2’의 해결책 제시에도 의식적 측면을 추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나)의 2문단에서도 의식적 측면의 원인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고, 3문단에서는 의식적 측면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㉔을 활용하여 ‘서론’에서 ‘자전거 생산의 현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자전거 관련 산업의 육성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은 ‘본론’의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㉔은 제도적 측면의 사례이므로 ‘본론-2-ㄴ’의 시설적 측면의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㉔은 문제의 원인이 아니므로 ‘본론-1-ㄴ’의 하위 항목으로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㉔은 국민의 의식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이므로, ‘본론-1-ㄴ’에 제도적

측면의 원인으로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9.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 파악하기

(나)의 1문단을 보면, ‘지난 토요일에 역사 동아리반 친구들과 ~ 관광객들도 많아서 인상적이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화제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글을 시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ㄴ). 또 2문단에서 글쓴이는 ‘신라 때 창건된 전통 사찰’과 ‘△△ 장군의 생가’, ‘고택’, ‘근대 문화유산’ 등 다양한 역사 문화 자원을 예로 들고 있으므로, 내용 전개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ㄷ).

[오답풀이] ㄱ: (나)에서 글쓴이는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거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였으나,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ㄴ: (나)에서 통념을 비판하는 내용이 없다.

10. [출제의도] 고쳐 쓰기의 적절성 파악하기

㉔은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되어 어색한 문장이다. 이 문장을 어법에 맞게 고치려면 서술어와 호응하는 목적어가 필요하므로 ‘시장님께’ 다음에는 ‘건의문을’ 혹은 ‘글을’과 같은 목적어를 추가해야 한다. ‘급히’라는 부사어는 ㉔에 꼭 필요한 성분이 아니다.

[오답풀이] ②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와 같은 표현은 우리말답지 않은 영어식 표현이므로 ‘생각을 했습니다’로 고친 것은 적절하다. ③ 2문단은 역사 문화 자원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사례이고, 3문단은 역사 문화 자원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고 있는 ○○시의 사례이다. 2문단과 3문단은 내용상 상반되므로 ‘또한’이 아니라 ‘하지만’으로 바꾸어야 한다. ④ ‘개발’은 ‘슬기나 재능, 사상 따위를 일깨워 줌’을 뜻하는 말이다. 문맥상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새로운 생각을 내어놓음’을 뜻하는 ‘개발’이 적절하다. ⑤ ‘방치’는 ‘내버려 둠’을 뜻하는 말이므로 ‘내버려두거나’와 의미상 중복되므로 ‘내버려두거나’를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11~15] 문법

11. [출제의도] 음운의 변동 파악하기

‘덜개[덜개]’에서 ‘덜-’의 ‘ㅛ’은 <보기>의 일곱 자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ㅛ’을 ‘ㅛ’으로 바꾸어 발음하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것이다. ‘-개’의 ‘ㄱ’은 앞 음절 받침 ‘ㅛ[ㅛ]’ 뒤에 연결되어 된소리 [ㄱ]으로 발음하는 된소리되기 적용된다.

[오답풀이] ① ‘국밥[국밥]’은 된소리되기 현상이 나타난다. ② ‘닫는[닫는]’은 비음이 아닌 자음(ㄷ)이 비음(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으로 동화되는 비음화 현상이 나타난다. ④ ‘공권력[공권력]’은 두 개의 형태소나 단어가 합쳐져서 합성어가 될 때,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하는 사잇소리 현상([공-권])과 비음화([~권력])가 일어난다. ⑤ ‘불이다[부처다]’는 자음 ‘ㄷ, ㅌ’이 모음 ‘ㅣ’와 만나 [ㅌ, ㅌ]로 동화되는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난다.

12. [출제의도] 문장의 종류 이해하기

‘우리는 어제 학교로 돌아왔다.’는 주어(‘우리는’)와 서술어(‘돌아왔다’)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홑문장이다.

[오답풀이] 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② 부사절(‘소리도 없이’)을 안은 문장이다. ④ 관형절(‘우리가 돌아온’)을 안은 문장이다. ⑤ 대동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13. [출제의도] 형용사와 관형사 구별하기

ㄱ의 ‘아름다운’은 ‘꽃이 아름답다’처럼 주어인 ‘꽃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며, ㄷ의 ‘빠른’은 ‘일처리가 빠르다’처럼 주어인 ‘일처리’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

므로 형용사이다. 하지만, ㄴ의 ‘웬’과 ㄷ의 ‘새’, ㄹ의 ‘모든’은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관형사이다.

14. [출제의도] 합성어의 특성 이해하기

‘마소’는 ‘말’과 ‘소’가 결합하면서 ‘ㄹ’이 탈락하여 만들어진 합성어로, 형태 변화는 있으나 의미 변화가 없다.
[오답풀이] ① ‘어제’와 ‘오늘’이 결합한 합성어로, 형태 변화는 있으나 ‘아주 최근이나 요 며칠 사이’라는 의미로 쓰였으므로 원래의 의미가 변화하였다. ② ‘안’과 ‘밖’이 결합한 합성어로, 형태 변화가 있으며, ‘사람의 안팎’으로 쓰일 경우에는 ‘마음속의 생각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라는 뜻으로 쓰이므로 의미가 변화하였다. ④ ‘세’와 ‘네’가 결합한 합성어로, 형태 변화는 있으나 의미 변화는 없다. ⑤ ‘술’과 ‘나무’가 결합한 합성어로, ‘술’의 ‘ㄹ’이 탈락하여 형태 변화는 있으나 의미 변화는 없다.

15. [출제의도] 간접 발화 이해하기

‘뮤지컬 함께 보러 가자.’라는 화자의 발화는 청유형 어미 ‘-자’를 사용한 청유문으로 표현되었으며, 요청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직접 발화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반장의 발화는 평서형으로 표현되었으나, 떠드는 학생에게 조용히 하라는 지시의 뜻을 담고 있으므로 간접 발화이다. ② 엄마의 발화는 의문형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게임을 그만하라는 지시의 뜻을 담고 있으므로 간접 발화이다. ③ 시어머니의 발화는 의문형으로 표현되었으나, 우산을 들고 마중을 가는 게 어머니는 요청의 뜻을 담고 있으므로 간접 발화이다. ④ 사장의 발화는 의문형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실수를 하지 말라는 주의의 뜻을 담고 있으므로 간접 발화이다.

[16~18] 인물

<출전> 박지영, 『윤패한 심리학』 (재구성)

개관: 이 글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문제 중심적 대처 방법과 정서 중심적 대처 방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두 가지 대처 방법을 비교하여 특징을 설명하고, 정서 중심적 대처 방법의 유형을 제시한 글이다.

16. [출제의도] 글쓰기 방식 파악하기

이 글은 스트레스의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문제 중심적 대처 방법’과 ‘정서 중심적 대처 방법’으로 구분하여 개념을 제시한 뒤, 정서 중심적 대처 방법 즉 방아기계를 다시 억압, 부인, 합리화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또 합리화의 유형을 신 포도형, 달콤한 레몬형, 망상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유형별로 중심화제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 글쓰기 방식이라 볼 수 있다.

17. [출제의도] 중심 내용 적용하기

은화가 성적 저하의 원인을 위층의 소음 때문이라고 말한 것은 방아기계와는 다른 의식적인 변명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은화는 열심히 공부하려는 욕구가 있으나, 위층의 소음으로 인해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철수는 자판기에서 음료수가 나오지 않아 음료수를 먹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③ 은화가 위층 주인에게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해 달라고 말했다면, 이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상황을 없애기 위해 직접적으로 행동한 것이다. 이는 ‘문제 중심 대처 방법’에 해당한다. ④ 철수가 원래부터 음료수를 그다지 먹고 싶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은 합리화 중 ‘신 포도형’에 해당한다. ⑤ 철수가 자동판매기 관리자에게 전화를 걸어 음료수를 받았다면, 음

료수를 먹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자신이 처한 문제 상황을 직접적으로 해결한 것에 해당한다.

18. [출제의도] 내용 추론하기

[A]의 마지막 문장을 통해 방아기계는 사실을 왜곡하고 자기를 기만하여 고통스런 상황을 순간적으로 벗어날 수 있게 할 뿐이지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문제 중심적 대처 방법과 정서 중심적 대처 방법이 있는데, 사실 왜곡은 정서 중심적 대처 방법, 즉 방아기계에 서만 일어난다. ③ 방아기계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은 사회적인 윤리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⑤ 육체적인 고통을 치유하는 데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인지 는 제시문을 통해 알 수 없다.

[19~21] 기술

<출전> 한나가타 야스마사, 『3일만에 읽는 생활 속 과학』 (재구성)

개관: 이 글은 ‘신호화→이치화→부호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책시밀리가 문서를 어떻게 읽어 내는지 그 작동 원리와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19.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하기

3문단을 보면, 흰색이나 검은색 이외의 화소는 이치화 작업을 통해 흰색 또는 검은색으로 분류된다고 하였으므로, 흰색과 검은색 화소는 이치화 작업이 필요 없다.
[오답풀이] ①은 1, 4문단에, ③은 2문단에, ④는 4문단에, ⑤는 3문단에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20. [출제의도] 세부 내용의 원리 이해하기

2문단을 보면, 발광 다이오드에서 쏘인 빛은 흰색에서 반사되고 검은색에 가까워질수록 더 잘 흡수되는 성질이 있다. 화소 A와 화소 B 중에서 화소 A가 흰색을 더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화소 A보다 화소 B에서 빛이 더 잘 흡수된다. 따라서 ②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화소 A는 흰색이므로 이치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지만, 화소 C는 회색이므로 이치화의 과정을 거친다(3문단). 따라서 화소의 색을 판단하는 단계는 A보다 C가 복잡하다. ③ 화소의 크기가 작을수록 원본에 가까운 문서를 얻을 수 있다(2문단). ④ 하나의 화소에 흰색과 회색이 섞여 있으므로, 일단 회색이라고 해독한 후에 이치화의 작업을 거친다(3문단). ⑤ 회색이 일정 수준보다 짙으면 검은색으로, 옅으면 흰색으로 판단한다(3문단). 따라서 <원본>에서 회색인 화소 C가 <출력본>에서 검은색이 되었기 때문에, 일정 수준보다 짙다고 볼 수 있다.

21. [출제의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기

책시밀리에 문서를 넣으면 가로의 정보를 먼저 읽고, 세로로 이동한 다음 다시 가로의 정보를 읽는 과정이 반복된다(2문단). 또한 화소에 같은 색이 연속되면 문서를 읽는 속도가 빨라진다(4문단). 따라서 문서가 들어가는 방향을 기준으로 가로에 동일한 색이 연속적으로 배열될 때 책시밀리가 문서 읽는 속도가 가장 빠르다.

[22~25] 사회

<출전> 박준식, 『브랜드, 행동경제학을 만나다』 (재구성)

개관: 심리학과 경제학을 접목하여 인간의 경제 행위를 분석하는 학문인 행동경제학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글이다. 기존의 경제학이 전제하는 인간관에 대해 비판하면서, ‘휴리스틱’과 ‘손실 회피성’ 등 행동경

제학의 주요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2. [출제의도] 세부 정보 확인하기

사람들은 이익과 손실의 크기가 같더라도 손실 회피성으로 인해 이익보다 손실을 2배 이상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23. [출제의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기

정가와 이보다 낮은 판매가격을 함께 제시하면 정가가 기준점으로 작용하여 사람들은 제한된 판단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판매가격을 상대적으로 싸다고 인식하므로, 기준점 휴리스틱을 활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② 호감도가 높은 연예인을 내세워 소비자들에게 받아들이게 하는 광고는 감정 휴리스틱을 활용한 사례이다. ③ 인지도가 높은 제품이 경제행위의 기준점으로 작용한 것은 아니다.

24. [출제의도] 사례에 근거하여 추론하기

최후통첩 게임의 실험 결과는 인간이 철저히하게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때로는 인간이 이타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존의 경제학 입장에서 A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B가 거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이 거의 전부를 가지겠다고 제안해야 한다. 그러나 행동경제학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A들(㉞)이 40% 이상의 몫을 제안하는 것은 A가 B를 의식하여 자신의 이익을 어느 정도 포기하며 선택한 관대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행동경제학의 입장에서 완전히 이기적인 존재를 가정하는 기존의 경제학의 인간관을 비판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의사 결정을 할 때 인간이 이성이나 합리성에 의존하여 판단한다고 보는 것은 기존의 경제학 입장이다. ② 기존의 경제학에서 많은 B들(㉟)을 효용을 극대화하는 이기적인 존재로 보려면, 약간의 이익이라도 생기면 A의 제안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 ③ ㉟의 행위는 인간은 철저히하게 합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기존 경제학의 전제에 어긋나므로 기존 경제학을 옹호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④ ㉞는 제한적으로만 합리적인 행동을 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지 못한 존재이다.

25. [출제의도] 단어의 사전적 의미 알기

‘상정(想定)’은 어떤 정황을 가정하여 단정함을 의미한다. 토의할 안건을 내 놓음을 뜻하는 낱말은 ‘상정(上程)’이다.

[26~27] 예술

<출전> 박율미, 『모두를 위한 서양 음악사 1』 (재구성)

개관: 고대 그리스의 음악 미학인 에토스 론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글이다. 에토스 론에서는 음악이 인간의 영혼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여 음악의 가치를 윤리성과 관련지어 판단한다.

26. [출제의도] 핵심 정보 적용하기

<보기>의 (가)는 도구적인 음악관에 반대하며 음악의 독립적인 가치를 내세우고 있으므로 교육 수단으로의 음악의 가치를 강조한 플라톤의 이론과 반대가 된다(ㄱ). (나)는 덕성 함양과 사회 교화의 수단으로 음악 교육을 내세우고 있으므로 음악 교육을 통해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할 것을 주장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과 같은 맥락이다(ㄴ, ㄷ).
[오답풀이] ㄷ: (다)는 음악의 목적을 정서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으므로, 선과 덕을 지향하지 않는 음악은 모두 추방해야 한다고 본 플라톤의 생각과는 반대이며, 다양한 종류의 음악의 가치를 인정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와는 통하는 부분이 있다.

27. [출제의도] 구체적인 사례 찾기

슬픈 피아노 연주곡을 듣는 것은 동종의 감정인 슬픔을 자극·환기하고, 울음을 통해서 배설함으로써 과도한 상태가 제거되어 기분이 가벼워진다. [오답풀이] ①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평온해진 것은 과도한 상태가 제거된 것이지만, 잔잔한 명상 음악은 '초조·불안'과 비슷한 성격의 음악이 아니다. ② 우울한 마음에서 벗어나 기분이 좋아진 것은 과도한 상태가 제거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신나는 록 음악은 '우울'과 비슷한 성격의 음악이 아니다. ③ 편안하고 포근한 기분이 더욱 행복해지는 것은 과도한 상태가 제거된 것이 아니다. ④ 만족스러운 마음에 긴장감이 풀리는 것은 과도한 상태가 제거된 것이 아니다.

[28~30] 과학

<출전> 리스 외, 『생명과학』 (제구성)

개관 : 이 글은 식물 호르몬 중의 하나인 에틸렌의 두 가지 기능을 소개하고, 그 중 한 기능과 관련된 돌연변이체 연구와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다. 그 기능은 과일인 성숙 유도, 물리적 자극에 대한 삼중반응 유도이다. 후자에서 세 유형의 돌연변이체가 발견되었고, 이는 생물학자들의 유전자 연구에 도움을 주었다.

28.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덜 익은 과일만 있는 곳에 잘 익은 과일을 두면 덜 익은 과일이 더 빨리 익는다. 2분단을 보면, 에틸렌이 전달되어 과일을 더 잘 익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9. [출제의도] 원리를 사례에 적용하기

①의 앞 문장을 바탕으로 '양성 되먹임'을 파악하면, '어떤 원인(에틸렌 합성)의 '결과(과일의 성숙)'가 다시 '그 원인(에틸렌 합성)'에 작용해 '그 결과(과일의 성숙)'를 촉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원인에 따른 결과가 다시 원인을 촉진하는 순환인 것이다. 이는 '현열(원인)→생명을 구함(결과)→생명을 구한 사람들의 현열(그 원인)→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함(그 결과)'이라는 순환 과정에 적용할 수 있다. [오답풀이] '실내 온도 상승→냉방기 작동→실내 온도 하강'(①), '청년 창업 자금 지원→일자리 창출→청년 실업률 하강'(②), '한낮의 기온 상승→수증기 증발과 구름의 양 증가→기온 하강'(③), '근력 저하→체력 강화 훈련→근력 향상'(④)은 원인에 따른 결과가 다시 원인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억제하는 '음성 되먹임'에 해당한다.

30. [출제의도] 세부 내용의 원리 이해하기

[A]에는 정상적인 애기장대와 세 가지 유형의 돌연변이체가 드러난다. 그림에서 ⑥는 에틸렌을 처리하면 삼중반응이 일어나는 정상적인 애기장대이다. 에틸렌 합성과 조절에 이상이 생긴 것은 돌체 유형의 돌연변이체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② ⑥는 에틸렌을 처리해도 반응하지 않는 첫째 유형의 돌연변이체이다. ③ ⑦는 에틸렌을 20배나 많이 합성하고, 에틸렌 합성 억제제를 처리하면 정상적인 형태로 돌아가는 돌체 유형의 돌연변이체이다. ④ ⑧는 에틸렌 합성 억제제를 처리해도 정상적인 형태로 되돌아가지 않는, 항상 삼중반응을 보이는 돌연변이체이다.

[31~33] 현대시

<출전> 이용악, 『전라도 가시내』

개관 : 이 시는 일제강점기 유이민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시의 화자는 함경도 남자로 북간도의 어느 술집에서 전라도 여인을 만나 여인과 이야기하면서 그녀가 석 달 전 기차를 타고 두만강을 건너 북간도까지 왔다는 사실을 듣게 된다. 화자는 자신의 처지를 한스러워하는 여인에게 연민을 느끼고 그녀를 위로한다. 시의 후반부에서 화자는 앞으로 혹독한 현실에 굳건히 맞서겠다는 의지를 다진다.

31.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1연, 3연, 5연에서 '가시내야'를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으며, 4연의 '가뒀더냐', '호리더냐', 6연의 '나설 게다', '노래도 없이 사라질 게다', '자옥도 없이 사라질 게다' 등에서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화자는 시적 대상을 가까운 거리에서 관찰하고 있지,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하여 대상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③ 수미상관 기법은 시의 앞부분과 끝부분이 유사한 구조로 내용이 반복되는 것을 말한다. 이 시에는 이런 특징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④ '돌아가거라'에 명령형 어미가 사용되었으나 이 시어에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배려심이 드러나 있지, 우월감이 드러나 있지는 않다. ⑤ 이 시에는 연쇄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32.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 파악하기

'단풍이 물들어 천 리 천 리 도 천 리 산마다 불타올라'는 이어지는 시구인 '외로워서 슬퍼서'와 연관하여 볼 때 '가시내'의 슬픔을 더욱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이 시구에서 '가시내'의 삶이 미래에는 나아질 것이라는 '나'의 확신을 확인할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① '알록조개'는 바닷가를 연상시킨다. '자랐나'라는 표현을 통해 '가시내'가 과거에 바닷가에 살았으리라는 것을 '나'가 추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흠참한 기법'은 '흠참하고 참혹한 소식'이라는 뜻으로, '나'가 현재 편한 마음 상태에 아님을 알 수 있다. ④ '싸늘한 웃음'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가시내'의 자조적인 반응이다. 이런 반응은 '가시내'가 현재 매우 한스러운 심리 상태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⑤ '눈로래 휘감아지는 별판은' 매우 혹독한 상황을 상징한다. 이 별판으로 화자가 '우울우울 나서겠다'는 것은 고난에 맞서 나가겠다는 의지와 미래의 행동을 표현한 것이다.

33. [출제의도] 공간의 의미 파악하기

'너의 나라'는 '가시내'의 조국이나 고향을 의미한다. 화자가 '가시내'에게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고 한 것은 실제로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상상 속에서나마 고향의 모습을 떠올려 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또한 마지막 연을 보면, '나'는 '가시내'와 이별하여 또 다른 곳으로 떠나겠다는 마음이 나타난다. 따라서 '나'가 '가시내'와 함께 '너의 나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바람 소리도 호개도 인제 무섭지 않다만', '자옥한 시름을 달게 마시려다만'에서는 현실의 고통에 굴복하지 않고 번민에 빠지지 않겠다는 화자의 강한 다짐이 드러난다. 화자는 이런 굳은 마음을 품고 '북간도'로 왔다. ② '가시내'의 고향은 전라도인데 '너의 나라'로도 표현되어 있다. 4연을 보면 '가시내'는 이곳에서 살다가 기차를 타고 두만강을 건너 '북간도 술막'으로 오게 된다. ③ '북간도 술막'에서 '나'와 '가시내'는 만난다. 이곳에서 '나'는 '가시내'의 불행한 처지를 듣게 되고 그녀에게 연민을 느낀다. '너의 가슴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을 나는 해메이자', '그래두 외로워서 슬퍼서 치마폭으로 얼굴을 가렸더냐' 등에 '가시내'에 대한 화자의 연민의 감정이 잘 드러난다. ④ '두어 마디 너의 사투리로 때 아닌 봄을 불러줄게'는 현재 자신의 처지를 한스러워하는 '가시내'에게 화자가 그녀의 고향말을 써가며 그녀를 위로하는 장면이다. '순매 수줍은 분홍댕기 휘 휘 날리며 잠깐 너의 나라로 돌아가거라'는

화자의 전라도 사투리를 듣고 상상으로나마 고향을 떠올려 보라는 의미이다. 즉 화자는 '가시내'가 자신의 고향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34~36] 현대소설

<출전> 김정환, 『모래톱 이야기』

개관 : 이 작품은 낙동강 하류의 모래톱 조마이섬을 배경으로 하여 서술자 '나'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유력자와 선량한 민중들 사이의 갈등 관계를 그린 소설이다. 억압 받으며 살아 온 농민들의 삶을 통하여 한국의 모순된 현실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34.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조마이섬의 내력과 홍수로 인해 갈등이 고조된 섬의 상황에 대해 서술자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1인칭 관찰자인 '나'가 권우 할아버지나 윤춘삼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조마이섬의 내력을 소개한 부분은 있지만, 섬의 외적인 모습을 묘사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고,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낭만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② 의식의 흐름 기법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처음부터 끝까지 1인칭 서술자에 의해 사건이 전달되고 있으며 장면의 전환에 따른 시점의 변화는 찾아볼 수 없다. ⑤ 앞부분은 과거 조마이섬의 내력을 전해 듣는 부분이고, 뒷부분은 갈발세 영감과 유력자 하수인들이 충돌했던 사건에 대해 전해 듣는 부분이다. 뒷부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 두 사건이 동일한 시간대에 펼쳐진 것은 아니다.

35. [출제의도] 감상의 적절성 평가하기

<보기>에 따르면 전체지반은 두 의지가 충돌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홍수로 인해 주민들의 삶이 위협에 빠지지만, 홍수 자체가 두 의지를 위협하는 폭력적인 힘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오답풀이] ① 엉터리 독은 유력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유력자는 독을 의도적으로 부실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홍수가 나면 일시적으로 간혀 있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섬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게 된다. ③ 갈발세 영감은 유력자가 만들어 놓은 엉터리 독을 허무는 과정에서 유력자 하수인들과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 하수인 중 한 명이 갈발세 영감의 태질로 타박에 휘말려 죽는다. ④ 갈발세 영감과 청년들의 충돌 현장을 인물들이 사용하는 비속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사실적으로 전달한다. ⑤ 검경 지프차에서 내린 청년들은 유력자의 하수인으로, 권력의 의지를 행동으로 실천하여 갈발세 영감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인물들이다.

36. [출제의도] 등장인물의 심리 이해하기

⑦은 공평하지 못한 법 앞에 다수의 민중들이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현실을 접하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이방인처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과 무력감을 나타낸 것이다. [오답풀이] ① 서술자는 섬사람들의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지, 자신에게도 닥칠지 모를 위협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다. ② '유력자의 배짱과 선량한 다수의 목숨'을 보면 서술자가 부조리한 현실의 모순을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⑤ 유력자와 섬사람들 사이에서 누구 편을 들지에 대해 갈등하거나, 섬사람들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려는 심리는 나타나지 않는다.

[37~39] 교전시가

<출전> 윤선도, 『만홍』

개관 : 이 작품은 작가가 병자호란 때 임금을 모시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유배갔다가 풀려난 뒤, 고향인 전

라도 해남에 은거할 때 쓴 전체 6수의 연시조이다. 부귀공명과 같은 세속적 가치를 멀리하고 자연에 묻혀 소박하게 사는 즐거움을 자연과 속세를 지칭하는 대조적인 시어를 활용하고, 한문두의 표현을 자체화면서 순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려 표현하고 있다.

37. [출제의도] 표현 방식 이해하기

이 시에서 ‘띠집, 보리밥, 쫓나물, 산, 강산’ 등은 자연에 묻혀 살아가는 소박한 삶을 지칭하는 시어들이고, ‘그 남은 여남은 일, 인간만사’는 세속적 가치를 지닌 의미의 시어인데, 이를 활용하여 소박하고 한가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주체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어조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② 점층적 표현으로 나타나는 정서의 고조는 없다. ③ 계절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④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다.

38. [출제의도] 화자의 인식 태도 파악하기

화자는 혼자 앉아 바라보는 먼 산의 말을 하거나 웃음을 짓지 아니해도 그리워하던 ‘임’을 만난 것보다 즐겁다. 따라서 화자가 인식하는 ‘먼 산’은 가까이하고 싶은 친화적 공간이며, 이 공간에서의 삶은 화자에게 자족감을 준다. 화자는 자연에 묻혀 한가롭게 살면서 자연과 하나 되는 삶에서 스스로 만족감과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남들’의 세속적인 가치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 의연하게 자신의 신념대로 자연에 의거하는 삶을 받아들이고 있다.

39. [출제의도]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보기>에는 작가가 수십 년 간이나 세속에서 정적들로부터 탄핵과 모함을 받아 고충을 겪은 뒤에 세속적 삶에 염증을 느껴 문인의 삶을 추구했음이 나타나 있다. ‘향암’은 화자가 자신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이다. 유배와 낙향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세상 물정에 어두워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답풀이] ① 문인의 삶은 자연 속에서 한가롭고 소박하게 지내는 것과 관련이 있으므로 ‘띠집, 보리밥 쫓나물’에서 유추할 수 있다. ② ‘남들’은 화자와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을 이므로 정적들의 일부가 포함될 수 있다. ④ 순 우리말의 아름다운 묘미는 ‘슬카지, 말마초’ 등과 같은 어휘에서 발견할 수 있다. ⑤ ‘여남은 일’은 세속적인 부귀영화를 비유하므로 화자가 겪은 정치적 혼란 상황과 관련이 있다.

[40~43] 고전소설

<출전> 권필, 「주생전(周生傳)」

개관 : 이 작품은 전형적인 애정소설로, 권필이 지은 한문 소설이다. 소설의 내용은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사로 조선에 출전했던 주생이란 선비를 ‘나’가 송도에서 만나, 그의 기구한 사랑의 과정을 듣고 감동해서 기록한 이야기이다. 송도에서 ‘나’와 만났던 주생이 그 뒤에 선화를 다시 만났는지는 알 수 없다. 선화를 두고 멀리 타국에 와 있는 주생, 끝내 선화에 대한 그리움으로 병든 주생의 모습만이 작품의 결말로 제시되어 있다.

40. [출제의도] 세부 정보 이해하기

고전 소설에서 여성 주인공은 대체로 남성 주인공의 입신양명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소설에서 ‘선화’는 자신을 떠난 주생을 기다리며 그리워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생’의 사회적 성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고전 소설에서 주인공의 욕망은 사회적 계도나 신분, 가문, 부모의 반대 등에 의해 좌절된다. 이 외에도 전쟁이라는 불가항력에 의해 좌절되기도 하는데, ‘주생’과 ‘선화’의 사랑의 결실은 전쟁(임진왜란)이라는 외부적 상황으로 인해 좌절되고

있다. ③ ‘유격대장’은 ‘주생’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생’을 전쟁에 동원한다. ④ ‘장 노인’은 ‘주생’과 ‘선화’의 결연을 위한 조력자 역할을 하는 존재이다. ⑤ 명나라는 조선을 구원한다는 명분으로 지원군을 파병하지만, 동시에 자국의 안위를 우려하고 있다.

41. [출제의도] 삽입시의 기능 이해하기

고전 소설에서 삽입시는 등장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거나 사건 전개에 돕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작품 속의 ‘답사행’에는 ‘선화’와 이별한 ‘주생’의 외로운 심정, 이국 만 리 떨어져 있는 나그네의 처지, ‘선화’가 있는 전담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등이 잘 드러나 있다.

42. [출제의도] 작품의 구조 이해하기

이 작품은 지난날에 대한 주생의 슬회 내지 고백을 제3자인 ‘나’가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액자소설 구조를 하고 있다. 작품의 전반부에는 ‘장 노인의 집→선화의 집→주생이 있는 곳→황궁→송도’ 등으로 장면이 빈번히 바뀌는데, 후반부에는 전반부에 비해 장면 전환이 적게 일어난다. [오답풀이] ① 전반부의 중심인물인 ‘주생’은 후반부에도 중심인물이다. ③ 미완결 결말로 처리되어 ‘주생’이 후일 ‘선화’를 다시 만났는지는 알 수 없으므로, 갈등 해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④ 이 작품에 ‘기이한 사건’은 등장하지 않는다. ⑤ 전반부는 전지적 시점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으나 인물에 대한 논평은 없다.

43. [출제의도]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성어 이해하기

‘남이 저물면 문을 닫고 온갖 상념에 젖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었으니, 제 몸이 이렇듯 수척하게 된 것도 모두 낭군 때문임이다.’에서 주생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선화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이런 상황에 알맞은 한자성어는 ‘자나 깨나 잊지 못함.’을 뜻하는 ‘오매불망(寤寐不忘)’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외로이 떨어져 있는 군사가 많은 수의 적군과 용감하게 잘 싸운다는 의미로, 남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힘에 벅찬 일을 잘해 나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②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의미한다. ④ 몹시 두려워서 별별 떨며 조심함을 뜻하는 말이다. ⑤ 이리저리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를 뜻하는 말이다.

[44~45] 극문학

<출전> 오영수 원작, 신봉승 각색, 「갯마을」

개관 : 오영수의 ‘갯마을’을 원작으로 하는 시나리오로 주인공 해순의 삶을 통해 삶의 근원인 바다를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표현한 작품이다. 작가는 해순의 ‘떠남-회귀’를 통해 바다를 해순이 살아가야 할 운명적 공간으로 설명하고 있다.

44.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이해하기

해순이 상수가 사고를 당해 죽을 것이라 생각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S#153에서 잊어버리고 나랑 단둘이서 살자는 내용을 담은 상수의 대사에서 알 수 있다. ② S#152의 성철의 대사 ‘바닷놀이 배 안 타고 뿔탈 집니까…….’에서 알 수 있다. ③ S#153의 해순이 상수와 한 대화에서 ‘바다가 보고 싶어 산에 올라갔 습니다.’에서 알 수 있다. ⑤ S#152의 어머니의 대사 ‘니는 배타지 마라.’에서 알 수 있다.

45. [출제의도] 장르의 특성 이해하기

S#168에서 해순이 상수를 땅에 묻고 흙을 밟는 모습은 상수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과 슬픔이 잘 드러나는 장면이다. 해순의 의지를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풀이] ① 어머니는 아들이 죽고 며느리 해순도

떠나 힘겨운 상황이므로 성철의 대사 ‘형수 걱정은 마소.’는 어머니의 상심을 달래려는 마음이 드러나게 해야 한다. ② 상수는 산에서 해순과 함께 살고 싶어 하고 있으므로 해순이 상수의 마음이 상할까 상수를 의심하며 바다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적절하다. ③ ‘어처구니없는 듯하면서도 지극히 동정적인 모습으로 해순을 본다.’에서 어처구니없이 하는 마음과 동정이 함께 나타나 있다. ⑤ ‘마구 우는 해순이지만 그 소리는 요란한 비바람 속에 잠겼음인지 들리지 않는다.’를 통해 미루어 알 수 있다.